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루가 2 : 40)

친애하는 사이타마 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새해의 기쁨을 전해 드립니다. 함께 걸어갈 올 한 해도, 잘 부탁 드립니다.

새해 첫 날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성모님의 전구에 의지하며, 세계와 인류에 평화가 있기를 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증오와 슬픔, 전쟁과 분열, 착취와 기아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의 도래를 바라며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와 소원의 실현을 향한 우리의 행보의 중심에, 젊은이들 이야말로 그 곳에 있었으면 하고 기원합니다. 바로 이때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2025년 성년을 향해, 특별히 젊은이들이 살아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르도록, 서로 힘을 모으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부름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의 위협이 수그러들고 있는 지금, 교구 차원의 젊은이들의 모임이 아직 없지만, 그 씨앗이 될 젊은이들의 작은 모임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적,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젊은이들의 모임으로 자라게 되리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 교구 전체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전 세대의 분들로부터 계승해 온 이 믿음을, 미래로 이어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연수센터 등에서, 청년들이 모여, 신자로서 희망을 서로 나눔을 갖고 싶다는 상담이 있을 때에는, 젊은이들의 희망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힘을 빌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월드유스데이(세계청년대회)는 3년 후인 2027년에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 대회에 주목하여, 우리 교구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2024 년 첫 날에, 민수기에 기록된 축복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민수기 6:24~25)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4 년 첫 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천주교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